

코로나19 고의 감염되려는 재소자들

로스앤젤레스의 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들이 조기 석방을 노리고 고의로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포착됐다.

LA카운티셰리프국은 지난 11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캐스태익에 있는 구치소 재소자들이 고의적으로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재소자 수십여 명이 컵 하나에 뜨거운 물을 담아 나눠마시거나 마스크 하나를 여러 재소자가 돌려쓰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고의적으로 어겼다. 재소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석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 컵과 마스크를 돌려 써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고, 여기에 뜨거운 물을 마셔 체온을 올린 뒤 고열 증상이 있는 것으로 위장할 목적이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재소자 50명 중 최소 21명이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나타냈다.

LA카운티셰리프국은 감염경로를 확인하던 중 문제의 영상을 입수한 뒤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알렉스 빌라누에바 LA카운티셰리프국장 "몇 주 전 구치소 내 확진자가 급증했고 우리는 정확한 감염 경



로를 알 수 없어서 당황했다. 하지만 조사 중 문제의 영상을 입수했고 재소자들이 고의로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그들(고의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재소자들)이 원하는 조기 석방 및 가택 연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 규범을 어기고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수감자와 구치소 내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그들이 철장 안의 감옥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현재 LA카운티 관할 교도소의 수감자는 1만 2,000여 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5,000명 이상 줄어 들었다.

마약 미국 반입 위해 '드론' 까지 띄운 멕시코 마약 조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장벽을 건설을 내걸었다. 이는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남미인들을 막는 것은 물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에서 거래되는 마약의 90%가 멕시코를 통해 유입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 마약시장의 규모는 연간 500억 달러를 넘는다. 이는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연간 총수익을 초과하는 막대한 규모다.

멕시코 마약 조직들은 그간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차량에 마약을 숨겨 반입하는 방법을 주로 썼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검거율이 높아 지자 국경 아래에 땅굴을 파는 방법도 이용했다. 잠수부를 고용해 야간에 해안을 건너는 방식도 종종 이용된다. 경비행기 이용은 구식이 된 지 오래다. 갈수록 교묘해 지는 멕시코 마약 조직이 최근에는 첨단 장비인 드론까지 이용하기 시작했다.



미 국경수비대는 지난 9일 저녁 9시경 애리조나주 인근 도시인 샌루이스 지역 국경 근처에 추락한 정체불명의 드론 한 대를 발견했다. 발견된 드론에는 2개 봉지에 담긴 727g의 마약이 실려 있었다. 국경수비대는 이를 수거해 샌루이스 경찰청으로 보냈고, 드론을 이용한 마약거래와 관련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접도시에서 발생한 마약조직 간의 다툼에서 엉뚱하게 미국인 가족 6명이 숨지자 멕시코 정부에 '마약과의 전쟁'에 개입할 의사를 밝혔다.

주먹으로 상어 얼굴 치고 살아남은 서퍼

상어가 허벅지를 물자 주먹으로 상어 얼굴을 쳐서 살아남은 서퍼의 사연이 화제다.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 딜런 나카스(23)는 지난 8일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벨스 비치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상어가 딜런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 너무 놀란 딜런은 주먹으로 상어의 얼굴을 때렸지만 상어는 딜런의 다리를 놓지 않았다.



딜런은 "주먹으로 상어를 쳤지만 다리를 놓지 않았고 두번째 주먹을 치자 사라졌다."며 "그러나 피냄새를 맡은 상어는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상어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너무나 무서웠다."고 말했다.

마침 딜런의 비명을 듣고 주변에 있던 호주인 서퍼 매튜 세턴너리가 딜런을 도와 함께 물로 나오기 시작했다. 매튜는 "처음에는 딜런이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상어의 지느러미를 발견하고는 실제 상황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은 마침 해변 언덕에서 매튜의 서핑 모습을 촬영하던 매튜의 친구 그레함 블레이드의 카메라에 생생히 포착되었다.

메라에 생생히 포착되었다.

다행히 부상을 크지 않았다. 딜런은 병원에서 허벅지에 4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딜런은 "아직 내 다리를 가지고 있다."며 "다리의 상처가 나으면 다시 서핑을 하러 바다에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가나 세무 & 보험의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가나 세무보험
GANA TAX & INSURANCE

실업수당 신청 • 긴급재난용자 신청 • PPP(금료보호 프로그램) 신청

**가나 세무 & 보험은 고객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세금과 보험을 함께 도와드리는 가나 세무 & 보험
보험고객은 세금수수료 50% 할인해 드립니다.
65세 이상 고객의 세금보고는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사업소득 제외)

세금보고 / 법인설립 / Sales Tax
세무감사대행 / 회계업무 / Payroll Service
오바마 케어 보험 / 메디케어 보험 / 기타 보험

세금보고마감 3개월 연장 : 7월 15일까지

김선광 (Kayson Kim)
40년 실무경험의 공인세무사
beachgana@gmail.com

O : 714.827.0707
C : 714.588.3355

3008A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